

지역 소식통

정읍시, 신학기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대응 교육

정읍시는 22일 신학기를 대비해 지역 내 어린이집 52개소 교직원

이번 교육은 면역체계의 발달이 미성숙한 영유아들은 감염병

특히, 장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교육에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한 개인 방역

또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

이와 함께 상비약품 2종을 배부하며, 약품 사고 방지를 위한 약품 관리 교육도 병행했다.

정읍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소 모집

정읍시가 지역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일반음식점 등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위생 전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영업주가 원하는 등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면 점수에 따라 위생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관련해 시는 3월 15일까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한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외) 8개소를 모집한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앞장'

정읍시, 민생경제 회복 일환...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20억 1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정읍 지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에 각 50만 원

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바일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2022년 폐업한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 태양광발전업 등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된다.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서 접포 사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원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베리앤바이오-식품산업진흥원, 베리 산업화 맞손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기대

고창군과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고창에서 북분자로 재배되어온 블랙라즈베리의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식품진흥원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에 이뤄낸 성과가 계속해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고창군은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증형원료("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로 인정받은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인정번호 제 2022-10호)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발히 사용될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창에서 북분자로 재배된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기능성표시식



고창군과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고창에서 북분자로 재배되어온 블랙라즈베리의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품 원료로도 인정받아 고창군 농업인과 가공업체의 부가가치 창출과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축적된 연구소의 노

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가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자봉센터-전국이통장연 부안지회, '뽕송이' 운영 협약 체결

부안군자봉센터(센터장 김영배)는 (사)전국이통장연회 부안지회(회장 김재희)와 22일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1월에 탄생한 부안군 세탁전담차량(뽕송이) 운영을 위해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안군 13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뽕송이'는 올해부터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취약계층의 대형 빨랫감을 세탁하여 각 가정 및 기관에 배달



해주는 역할 및 자연재해 긴급 복구 시 이재민을 지원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사)전국이통장연회 부안군지회 김재희 회장은 이어서 "뽕송이가 부안군 구석구석을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이장단협의회에서 부안군자봉센터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부안군자봉센터 김영배 센터장은 "늘 우리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로 부안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이장단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센터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지역민의 삶의안락도를 높이고 일상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안정적 양봉 사양 도모'

정읍시, 기후변화 대응 밀원수립 조성... 꿀벌 생육환경 개선 나서

정읍시가 밀원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양봉농가를 위해 경관형 밀원수립 조성

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전국적으로 꿀벌 실종 사태가 잇따르는데 가운데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양봉 사양 도모를 위해

총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3월까지 주요 벌꿀 생산 수종 나무 1만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밀원수는 꿀벌의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로 꿀벌 실종 사태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아까시나무와 백합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밤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계절별 꽃과 향기가 있는 밀원수 조립지를 확보함으로써 꿀벌의 생육환경 조성을 통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 등



경관자원으로의 활용과 지속가능한 입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양봉농가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소득원"이라며 "양봉농가의 소득향상과 산림 자원의 가치 향상을 위해 밀원수를 잘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밀원수에서의 꿀 생산 기능 외에도 아름다운 숲 조성을 통한 관광형 경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경관형 밀원수 립도 조성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미세먼지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17년부터 전기차 310대(승용 177, 화물 133)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970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전기차 110대(승용 50, 화물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 나누어(상 66대, 하 44대) 추진하며, 차량 1대당 지원금액은 승용은 최대 1,380만원, 1톤 화물은 최대 1,900만원으로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며, 23일부터 전기자동차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 대리점을 통해 대행접수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불가(주소가 부안군이 아니면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 밖에도 지원신청 자격 및 보조금 지급 요건과 관련해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에 많은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농기센터,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추진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추진한다.

면허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스카드러 등)는 농민들의 영농작업에 있어서 다양한 농작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농기계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8일까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추진한다.

면허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법규와 정비이론, 도로 통행 건설기계 장치 등의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 운전과 취급요령 등 실습 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론과 실습 등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